




6.25전시 납북자 명부들의 분석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원장 김 명 호



- 목 차 -

I. 서론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III. 기존 명부들의 종합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 6·25전쟁은 우리들에게 참혹한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특히, 납북인사 유가족들의 슬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유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이 중적인 고통에 시달렸음.
- 70여년의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납북자와 그 유가족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짐.
- 그동안 발견된 6·25전시 납북자 명부가 12종에 달하면서 정확한 납북자 수의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행히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납북피해 발생 60년 만에 납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음.
-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협조 없이는 납북자의 생존여부 등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납북자 관련 명부를 찾아 정리·분석하여, 북한에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작업 필요.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1.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1) 작성기관

- ‘공보처 통계국’이 단기 4283년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단기 4283년(1950년) 12월 1일 발행

- 4,616명의 명단 수록

檀紀4283年皇6月25日(6.25韓中)
皇9月28日

서울特別市
被害者名簿

冊
身別對被害者仁
後定缺容狀
事案種別容狀
錄
處別人口移動狀況
公營物被害狀況

公報處統計局

<그림 1-1>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표지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2) 작성 배경

-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9·28 서울 수복까지의 민간인 피해자 명단을 조사한 것

- 서울시내 9개 구청별로 조사한 명단을 담당 공무원이 한자로 직접 기재하여 등사(謄寫)한 것

- 2,438명의 명단 수록

- 가족회가 고서수집가로부터 입수

3) 범례

- 범례(範例)를 통하여 명부의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을 나타냄.

凡 例

1. 今般6.25事變中首都서울의被治三個月間에數多한愛國의著名人士가殘忍無道한共產黨에게虐殺, 擄奪 또는行方不明이되었다
首都서울特別市內의愛國的人物의被害狀況을調査하여編纂한 것이다
2. 被害人物의個別的內容을詳細히하기爲하여姓名, 性別, 年齡, 職業, 職歴, 住所의被害狀況에있어 場所, 時日, 種類等項目을定하여調査하였다
3. 調査對象을滿14歲以上으로하되 僑居美露의義勇軍으로出陣한者는除外하였다
4. 編輯에있어當初計劃인愛國의著名人士의選出限數가困難하게되어報告된被害者全體를收錄하고被害者名簿로題하였다
5. 被害者의家裏의便宜를圖謀하여被害者의住所를主觀으로하여各區別로編輯하고 다시多數姓項을 科會與統制部로整理하였다

檀紀4283年12月1日

公報處統計局

<그림 1-2>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범례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4) 명부 내용

- 명부상의 순서는 총괄표에 나타난 구별 (區別) 순서대로 작성

總 括 表

구 別	總 數	殺 害		拉 致		行 方 不 明	
		男	女	男	女	男	女
總 數	4,616	796	180	2,345	93	1,149	53
中 區	892	140	37	473	15	218	9
鐘 路 區	769	82	22	511	17	127	10
東 大 門 區	255	27	7	168	10	42	1
城 東 區	568	94	11	270	9	181	3
城 北 區	534	103	25	221	15	162	8
西 大 門 區	438	59	8	256	10	102	3
麻 浦 區	212	33	13	124	-	40	2
龍 山 區	579	150	35	211	12	163	8
永 登 浦 區	369	108	22	111	5	114	9

<그림 1-3>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총괄표

目 次	頁 數
中 區	1
鐘 路 區	33
東 大 門 區	61
城 東 區	71
城 北 區	93
西 大 門 區	113
麻 浦 區	129
龍 山 區	137
永 登 浦 區	159

<그림 1-4>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목차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1) 작성 방법

- 구별(區別)로 작성
- 각 구내(區內)에 다시 성씨별(姓氏別)로 맨 앞쪽에 목차 작성
- 한 페이지에 28명의 납북자 명단을 표로 만들어 개인별 가로방향으로 기록

姓及性別數一覽表

總數	男	女	總數	男	女	總數	男	女	總數	男	女	總數	男	女
金	230	216	14	姜	13	13	-	郭	5	5	-	蔡	2	2
李	135	127	8	林	12	11	1	許	5	4	1	千	2	2
朴	55	47	8	柳	11	10	1	鎮	4	4	-	薛	2	2
崔	37	36	1	盧	10	10	-	克	4	4	-	俞	2	2
趙	32	31	1	高	9	8	1	東	4	4	-	成	2	2
鄭	31	29	2	孫	8	6	2	元	3	2	1	福	2	2
張	23	22	1	全	8	8	-	元	3	3	-	福	1	1
尹	18	18	-	文	8	7	1	錫	3	2	1	莊	1	1
宋	16	15	1	劉	8	8	-	南	3	3	-	章	1	1
魏	15	13	2	朱	7	4	3	同	3	3	-	孔	1	1
黃	15	13	2	康	7	7	-	河	3	3	-	晉	1	1
白	15	13	2	徐	6	6	-	成	3	2	1	禹	1	1
吳	15	15	-	深	6	5	1	任	3	3	-	方	1	1
安	14	14	-	權	5	4	1	魏	2	2	-	嚴	1	1
洪	14	13	1	具	5	5	-	桂	2	2	-	魯	1	1
申	13	11	2	曹	5	5	-	王	2	2	-	琴	1	1

姓別索引表

頁	頁	頁	頁	頁					
金	1	姜	25	郭	29	蔡	31	邊	32
李	9	林	25	許	29	千	31	龍	32
朴	14	柳	26	鎮	30	薛	31	龍	32
崔	16	盧	26	克	30	俞	31	玉	32
趙	17	高	26	東	30	成	31	腹	32
鄭	18	孫	27	元	30	成	32	泰	32
張	19	全	27	元	30	福	32	魚	32
尹	20	文	27	錫	30	莊	32	辛	32
宋	21	劉	28	南	30	章	32	原	32
魏	21	朱	28	同	31	孔	32	田	32
黃	22	康	28	河	31	晉	32	天	32
白	22	徐	28	成	31	禹	32	陳	32
吳	23	深	29	任	31	方	32	馬	32
安	23	權	29	魏	31	嚴	32		
洪	24	具	29	桂	31	魯	32		
申	24	曹	29	王	31	琴	32		

<그림 1-5>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색인표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2) 조사항목

- 납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 일시', '피해 종류', '피해 장소', '약력', '주소'의 순으로 기재

- 피해종류의 항목은 '납치', '피살', '행방불명'으로 피해상황 구분

- 명부에 기록된 피해자 총수는 4,616명, 이 가운데 '납치'가 가장 많은 2,438명 (여성은 93명), 행방불명자는 1,202명, 피살자가 976명

- 현상윤 고려대 총장, 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소설가 이광수, 국회의원 안재홍, 조소앙 등 당시 유명 인사들과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교수, 교사,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납북자 기재

姓 名	性 別	年 令	職 業	所 屬 單 位	被 害 日 期	被 害 種 類	被 害 場 所	略 稱	住 所
金 瑞 俊	男	46	職員	東 安 公 司	9. 7	行 方 不 明	大 平 路 二 街 3 1 6		大 平 路 4 號 3 號
金 仁 玉	女	23		東 安 公 司	8. 15	被 害	大 平 路 7 3		大 平 路 5 號 2 號
金 慶 華	女	51	代 理 人	東 安 公 司	7. 24	自 電			大 平 路 1 號 2 號
金 貞 珠	女	34	報 社 員		6. 25	行 方 不 明	大 平 路 2 6 4 號 9		大 平 路 5 號 2 號
金 允 坤	男	42	獨 居		8. 25		大 平 路 2 5 8 號 1 0		大 平 路 5 號 4 號
金 錫 淳	男	43	向 委 員	東 安 公 司	7. 29	法 庭	大 平 路 1 3		大 平 路 1 號 3 號
金 德 泰	男	30	警 署 警 員	東 安 公 司	6. 25	被 害	大 平 路 乙 支 路 6 街		大 平 路 3 號 3 號
金 榮 五	男	30	職 工			行 方 不 明	大 平 路 水 源 街		大 平 路 7 號 2 號
金 榮 順	女	24	獨 居		6. 20		江 原 道		大 平 路 7 號 1 0 號
金 亨 福	男	22			6. 25		不 明		大 平 路 5 號 2 0 號
金 一 完	男	34	勞 務		8. 1				大 平 路 1 號 1 號
金 觀 鳳	女	24			8. 15		自 電		
金 在 景	男	24	職 工						
金 敬 善	女	19							
金 貞 善	女	20							大 平 路 1 號
金 泰 河	男	40	C I C		9. 26	行 方 不 明	忠 貞 路		
金 泰 河	男	53			7. 3	被 害	自 宅		大 平 路 2 號 5 號
金 允 中	男	21	學 生						
金 完 中	男	27	社 員	東 安 公 司	9. 18	行 方 不 明	不 明		大 平 路 3 號 3 號
金 東 琬	女	57	副 院 長	東 安 公 司	7. 20	被 害			大 平 路 3 號 4 號
金 同 喆	男	21	學 生			行 方 不 明			大 平 路 5 號 1 號
金 化 敏	女	61	公 司 長	東 安 公 司	9. 10		大 平 路 2 5		大 平 路 3 號 1 號
金 致 珉	男	47	本 部		9. 22	被 害	大 平 路 2 5		大 平 路 1 號 6 號
金 信 愛	女	26							
金 義 貞	女	20			9. 23				大 平 路 2 號 2 號
金 敬 權	男	30	公 路 員	東 安 公 司	8. 10	被 害	不 明		
金 順 伊	女	62			8. 7	行 方 不 明	大 平 路		大 平 路 3 號 4 號
金 柄 赫	男	45	警 署 警 員		7. 5	被 害			大 平 路 1 號 4 號

<그림 1-6>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내용

(3) 부록

- ‘임시 인구 및 피해조사결과 명세(단기 4283년 10월 25일)’의 제목으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체 등의 피해도 기록

- ① 연령계급별 인구수 : 서울특별시민에 대하여 1949년 5월 1일(6·25이전)과 1950년 10월 25일을 비교하여 구청별 가구수, 연령별, 성별 인구수가 구분되어 작성
- ② 원인별 피해자수 : 성별(계, 남, 녀), 사망(총수, 폭격, 총포, 화재, 피살, 행방불명, 비율), 부상자(총수,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비율)로 구분하여 작성
사망자의 수는 17,127명(1.2%), 부상자의 수는 5,114명(0.4%)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의 수가 많은 지역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의 순으로 나타남.
- ③ 주택피해상황 :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수(19,042가구)를 화재와 파괴로 나누어 피해면적과 피해금액을 기록하였으며, 서울시 주택의 6%가 피해를 입음.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 ④ 사업체피해상황 :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수 (5,187개)와 종업원수(33,823명)를 화재와 파괴로 나뉘어 피해면적과 피해금액 기록
- ⑤ 이동사항 : 가구수(92,894가구)와 인구수(292,038명)로 나뉘어져 나타났으며, 이동원인으로 폭격(25,971명), 화재(23,257명), 전출 및 피신(221,154명), 기타 (11,656명) 등으로 구분
- ⑥ 공영물(公營物) 피해상황 총괄표 : 서울시,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등 모든 부처를 피해면적(전체 피해 동수 : 1,203동, 피해면적 : 74,993평), 피해액(전체 피해액 545,970,279천원)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LIST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1) 작성기관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단기 4284년(1951년) 8월 27일 발행
- 2,527명의 명단 수록



<그림 2-1>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표지

2) 작성 배경

- 1951년 7월 10일 6·25전쟁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는 남한의 민간인 납북 문제가 휴전회담에서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UN군측 대표에게 전달하고자 서둘러 명부를 작성
- 9·28서울 수복 후부터 피해가족들로부터 받은 납치피해신고서를 직업별로 재분류하여 영문병기로 작성

3) 범례

- 범례(範例)에는 명부의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이 적혀 있음.

- ① 6·25사변중 수도 서울의 역치(逆治) 3개월에 무수한 애국적 저명인사가 잔인 무도한 공산당에게 납치되었다.
- ② 9월 28일 수도 서울에 환도이후, 서울특별시내 애국인사의 납치된 상황을 조사하여 편집한 것이다.(소수의 시외 인사가 포함됨)
- ③ 피해인사의 개별적 내용을 상세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직업(직위), 주소, 납치일 등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였다.
- ④ 조사대상을 괴뢰집단에 의용군으로 출두한 자는 제외하였다.
- ⑤ UN 각 기관의 열람상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성명을 부가하였다.
- ⑥ 피해자의 직업(직위)별로 종목을 정하여 통계를 계산하였다.



4) 명부 내용

- 명부의 맨 앞부분에 위치한 범례와 통계표는 먼저 국문으로 기재
- 다음 페이지는 앞 쪽의 내용에 대한 영문번역으로 기재,

<표 2-1>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통계표

정부 요인 및 관공리	328	미국대사관	18
법 조 계	88	경찰관 및 형무관	209
교 육 계	113	동회장 및 동회직원	83
언 론 계	79	학 생	120
실 업 계	391	예 술 가	20
의사 및 의학계	40	무직인사	95
은행가 및 회사원	209	청년단 및 민보단	442
기 독 교	31	추 가	142
군인 및 군속	119		
		총 수	2,527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 휴전회담의 UN군 대표, UN, 국제 사회 등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
- 목차는 직업별로 나열되고, 해당 쪽수 번호가 작성, 그 다음 쪽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기재
- 납북자의 조사항목은 '성명(영문 이름, 한문 이름)', '연령', '직장', '주소', '납치년월일' 순으로 작성

政府要人及留北名單

姓 名 NAME	年 齡 AGE	職 務 WORKING	住 所 ADDRESS	被擄年月日 Kidnaped date
LEE CHU HYUN 李 周 衡	45	國會議員	中興路103號38號	1950 7. 10
HEU YONG HO 許 永 鎭	51	初代國會議員	光復路 66 號 9	7. 13
HWAN SIN OKK 吳 淳 玉		前國會議員	桂洞 2 號 18	8. 15
YOUNG CHAI SE 卍 濟 世	46	國會議員	世宗路 1 號 20	7. 9
BAIK KWAN SU 白 寬 洙	62	以國克總務	延禧洞	7. 5
OH HA YEON 吳 夏 英	72	國會議員	政大大學	9. 8
SIN EL YONG 辛 日 鎭	57	政 電 人	新堂洞304號263	7. 27
YANG ZUI HA 梁 在 燮	44	國會議員	青波洞一街1號51	9. 17
AH ZAI HONG 安 在 洪	60	國會議員	政大洞山 11 號 152	
CHOO SO ANN 趙 末 昂				
HWAN SIN OH 吳 龍 雨	43	前商工部總務長	中興路洞一街50號18	7. 7
BAIK NAI CHIEL 白 南 七	59	管 財 處 長	鐵道區鐵道洞 71	7. 29
KANG GER BOK 康 巨 福	51	前 春 耕 院 院 長	桂洞 79 號 11	9. 14
LEE CHUNG SUN 李 貞 淳	43	國務總理秘書	慶慶洞 66 號 3	7. 6
EM BYONGHEK 林 炳 赫	43	前管財處長	錦祥洞	8. 2
KIM HYONG WAH 金 炯 元	51	公報處次長	清波洞 108 號 7	7. 27
UH DEK JUN 吳 德 淳	72	大韓國民院委員長	中興路洞 13	7. 13
KIM SAN OKK 金 尚 勳	57	國會議員	華洞2街128號31	7. 20
OHNG EN BO 吳 英 普	50	實務專員長	南山洞一街 16 號 4	7. 31
KU ZA OHK 具 滋 玉	61	遺 囑 書	會賢洞一街 101 號 12	9. 13

<그림 2-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내용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3.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

1) 작성 기관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 2,316명의 명단 수록

2) 작성 배경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1951년 9월에 작성하여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선생에게 제출된 것으로, 신익희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되어 가족회에 입수됨.
- 수록된 피납치자는 대부분 서울지역



<그림 3-1>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표지

3) 명부 내용

- 필사 등사본의 110페이지 분량, 서울시의 각 구청과 시외지역(수원, 양주, 광주 등)으로 구분,
- 조사항목으로 납북자의 '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일자' 작성
- 명단은 가로쓰기로 작성, 정해진 표양식을 만들지 않고, 한 페이지에 24~25명의 납북자 명단 수록
- 1950년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에 기재된 현상윤 고려대 총장, 손진태 서울 문리대 학장, 국회의원 안재홍 등 납북인사 기재

성명	직장	연령	주소
이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51	서울시 중구
현상윤	고려대 총장	51	서울시 중구
안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이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51	서울시 중구
현상윤	고려대 총장	51	서울시 중구
안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이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51	서울시 중구
현상윤	고려대 총장	51	서울시 중구
안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이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51	서울시 중구
현상윤	고려대 총장	51	서울시 중구
안재홍	국회의원	51	서울시 중구

<그림 3-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내용

4. 『6·25사변 피납치자명부』

1) 작성 기관

- 대한민국 정부
- 82,959명의 명단 수록
- 서울(1권), 경기·충북(2권), 충남·전라·제주(3권), 경상·강원(4권) 등 지역별로 분류한 4권과 추가분(서울특별시 및 각도)으로 발간한 별권을 합쳐 모두 5권으로, 1952년 10월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

6.25 事變

被拉致者名簿

(其 一)

大韓民國政府

<그림 4-1>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표지

2) 작성 배경

- 휴전회담에서 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 송환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제시할 납북자 명부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
- 전쟁 중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적 인명피해로 여기고 전국 일선행정기관에 명령을 시달
- 최초의 전국단위 납북자 명부
- 가족회가 2002년 2월 중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

3) 명부 내용

-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다른 명부와는 다르게 의용군과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납북자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명부
- 1차는 지역별로 작성된 4권의 통계자료이며, 2차는 추가로 조사된 서울시 및 각 도의 추가분에 실린 통계자료
- 1차, 2차에 수록된 납북자 수는 82,959명(남자 81,369명, 여자 1,590명)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표 4-1>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지역별 총괄표

성별 지역별	총 수			제1차			제2차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총 수	82,959	81,369	1,590	80,661	79,145	1,516	2,298	2,224	74
서울특별시	20,517	19,982	535	18,330	17,868	462	2,187	2,114	73
경 기 도	15,958	15,870	88	15,871	15,783	88	87	87	-
충청북도	6,168	6,155	13	6,166	6,153	13	2	2	-
충청남도	9,973	9,642	331	9,972	9,641	331	1	1	-
전라북도	7,013	6,592	421	7,013	6,592	421	-	-	-
전라남도	3,555	3,506	49	3,554	3,506	48	1	-	1
경상북도	7,486	7,396	90	7,483	7,393	90	3	3	-
경상남도	1,815	1,807	8	1,805	1,797	8	10	10	-
강 원 도	10,429	10,404	25	10,422	10,397	25	7	7	-
제 주 도	45	15	30	45	15	30	-	-	-

출처 : 대한민국 정부(1953, 3).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서울특별시

性別	總數	男	女
總數	18,330	17,868	462
中區	1,227	1,197	30
鍾路區	1,680	1,649	31
東大門區	2,717	2,700	17
城東區	1,836	1,818	18
城北區	2,797	2,785	12
西大門區	1,452	1,440	12
麻浦區	1,573	1,565	8
龍山區	3,674	3,637	37
永登浦區	1,374	1,077	297

<그림 4-2>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서울특별시 총괄표

서울특별시 1977년 12월 27일 현재 1197명 남 30명

姓名	性別	年令	職業	前居及籍址	被擄日期	被擄場所	在 所
李圭亨	男	41	自營農		8.27	中區明洞二街22	在 所 明
金錫淳	男	41				永登浦 13	
崔敬堂	男	50			9.15	30	
沈聖求	男	16			8.21	鍾路區仁寺洞路	中區永登浦 25
崔成燮	男	26	朝鮮日報社		8.13	中區梨子洞 1A	在 所 同
張應鎮	男	33	朝鮮日報社		7.15	中區蓮花洞 27	
尹長燮	男	18	朝鮮日報社				
趙東水	男	26	朝鮮日報社		8.3	中區平昌一街22	
金國燮	男	26	朝鮮日報社			中區梨子洞一街22	
任河淳	男	26			9.15	中區梨子洞一街177	
金昌浩	男	31			7.15	70	
申益雄	男	41				中區梨子洞一街27	
金克基	男	42				中區梨子洞一街26	
金桂元	男	35				中區梨子洞一街23	
金圭森	男	30			8.13	中區梨子洞一街54P	
金重年	男	52			8.25	中區梨子洞 255	
金森九	男	27			9.15	中區梨子洞 76	
金福伊	男	50			9.7	102	
金昌健	男	38			7.9	中區梨子洞一街211	
金振健	男	30			7.27	202	
吳成官	男	32			9.19	中區梨子洞一街175	
趙春甲	男	41	自營農			中區梨子洞一街36	
趙道三	男	27			8.10	永登浦一街 63	
金昌板	男	35			9.27 9.27	永登浦一街 21	
尹利鎮	男	20			9.27 9.10	永登浦一街 21	

<그림 4-3>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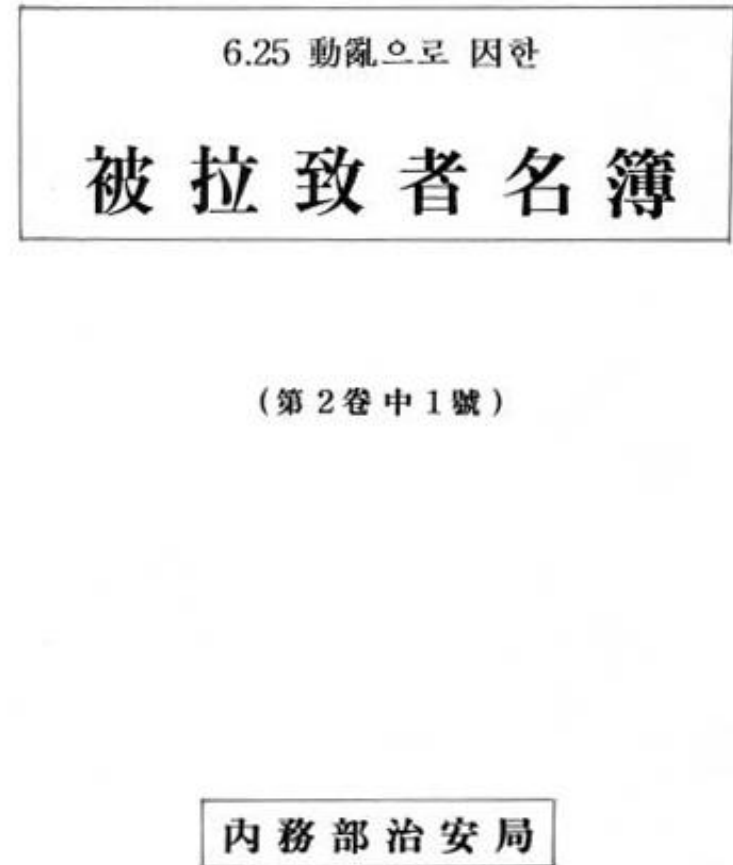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1) 작성기관

- 1954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
- 2권으로 구성
- 17,940명의 명단 수록



<그림 5-1>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의 표지

2) 작성 배경

-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가족회가 수집했지만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음.
- 그 후 외교정책자료실에서 지피자료로 된 2권의 동일한 명부가 발견되어 비로소 판독 가능
- 이 명부는 국제적십자사에 납북자 안부탐지를 의뢰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제외한 호주(戶主) 중심의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피납치자 명단이며, 납치 주체가 기록되어 있음.

3) 명부 내용

- 명부 1쪽에 <표 5-1>의 총괄표를 나타내고, 명부상의 전체 납북자 수를 지역별, 남녀별로 나타냄.
- 특이한 점은 충청북도의 납북자 수가 7,517명으로, 서울시의 4,281명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표 5-1>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의 총괄표

성별 지역별	총 수	남	여
총 수	17,940	17,573	367
서울특별시	4,281	4,121	160
경 기 도	3,361	3,198	163
강 원 도	949	946	3
충청북도	7,517	7,491	26
충청남도	382	380	2
전라북도	45	44	1
전라남도	453	449	4
경상북도	896	888	8
경상남도	56	56	0

출처 : 내무부 치안국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 한 쪽당 18명의 납북자 명단을 표로 작성
- 조사항목으로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납치상황’, ‘당시 주거지’ 기록
- 납치장소에는 ‘자택’, ‘노상’, ‘사무실’ 등을 분명하게 나타냄
- 처음으로 기재된 납치상황에는 ‘인민군에게 납치’, ‘정치보위부원에게 납치’, ‘내무서원에게 납치’ 등 당시 납치한 주체를 분명하게 기록

서울特別市
서울特別市 總人員 4,281名 男 4,121名 女 160名

姓名	性別	年令	職業	拉致年月日	拉致場所	拉致狀況	6.25營跡住居
金鍾益	男	58	麻浦區 區長	2.13	自 宅	人民軍에게拉致	西大門區 北洞院洞 35의5
金元慶	男	30	会社員	8.25	內務署員	內務署員	山一의24
金國鍾	男	22	無	7.8	無	無	山一
金洛榮	男	57	洞會長	8.18	無	無	5의2
金賢馬	男	36	教員	7.9	政治保衛團員	에게拉致	1의324
金魯聖	男	52	無	8.6	無	無	1의325
金鍾聲	男	29	商 業	8.27	無	人民軍에게拉致	2의43
金基模	男	21	軍 伍	8.20	無	無	山18
金基永	男	20	無	8.20	無	無	山
金模榮	男	16	無	8.20	無	無	山
金鍾股	男	52	公務員	7.7	無	政治保衛	1의547
金圭泰	男	24	學 生	8.2	西大門區 冷泉洞事務所	內務署員	玉川洞 107의1
金龍得	男	39	職 工	8.5	慈南洞 28	政治保衛團員	127의10
金忠妹	女	34	吳 務 署 員	8.22	自 宅	內務署員	119의1
金龍德	男	21	軍 伍	8.20	無	人民軍	北洞院洞 山18
金德培	男	41	教員	8.3	無	無	平洞 13의18
金教恩	男	52	軍 伍	8.3	無	無	紅花洞 114
金漢甲	男	49	商 業	7.12	無	內務署員	149

<그림 5-2>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의 내용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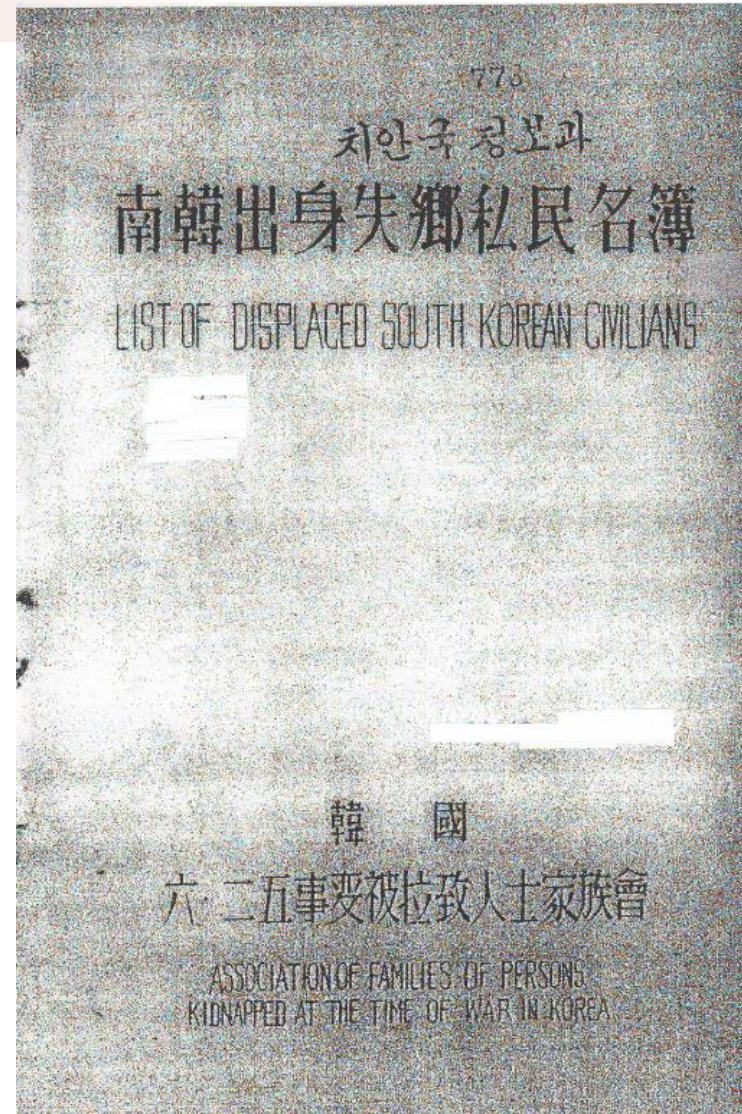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6.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

1) 작성기관

- 치안국 정보과

- 17,900명의 명단 수록



<그림 6-1>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표지

2) 작성 배경

- 납북자의 성명 앞에 영문 성명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UN 및 국외의 다른 기관에 명단을 발송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 회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편집한 것
- 명부 1쪽에 'NOTE'라는 제목 밑에 영문으로 명부 작성의 배경을 기록, 다음 쪽에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다른 명부의 범례와 같은 역할
- 기재된 납북자는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북한 공산정치보위부 및 내무서원에 게 체포당한 사람들로,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임시로 결성된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에서 편집한 것임을 서문에 명시



NOTE

This roster of Kidnapped South Koreans was compiled by the Association of the Families of Kidnapped Civilians, which was activated in Seoul shortly after the capital was liberated from Reds in September 1950.

This Association is composed of the families of south Korean civilians kidnapped by the communists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Data shown on this list were presented by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ose whose names are enlisted here were kidnapped during the Red occupation of south Korean provinces, June to September 1950, by the North Korean Army, Political Security Bureau members, and civil police.

本名簿는 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家族會에서 編纂한 것인바 本會는 1950年 9月 28日 서울收復後創立되었고 會員은 北韓으로 拉致당해간 人士의 家族으로 構成되었음.

本名簿는 本會會員으로부터 提出된 材料로서 編輯한 것으로서 本名簿에 記載된 被拉致人士는 1950年 6月에서 9월에 이르는 동안 北韓 共產政治保衛隊及 內務署員에게 逮捕당한 사람들도 다

<그림 6-2>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NOTE

<그림 6-3> NOTE의 번역문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3) 명부 내용

- ‘목록’에는 각 성별로 ‘ㄱ부’, ‘ㄴ부’, ‘ㄷ부’ 등 가나다순으로 나타냈으며, ‘ㄱ부’는 ‘KAN(簡)’, ‘KAM(甘)’, ‘KANG(姜)’, ‘KANG(康)’, ‘KYOUNG(慶)’ 등의 순으로 나타냄.

가	NAME	성	PAGE	나	NAME	성	PAGE
	KAN	簡	1		SHAN KUNGS	簡	233
	KAM	甘	1		NAB	甘	240
	KANG	姜	1		TANG	姜	240
	KANG	康	17		DO	康	244
	KYOUNG	慶	17		DAK KO	慶	244
7	KYOUNG	景	17		RY	景	241
	KE	桂	18		RO	桂	252
8	NO	諾	20		NO	諾	284
	KANG	康	29		NO	諾	293
	KWAN	官	33		YU	官	295
	KO	高	30		YOK	高	311
					LEE	高	313
	KUN	君	34		YIM	君	313
	KUN	君	37		ALB	君	312
	KUM	君	52		MA	君	311
	KEE	奇	52		LEE	君	311
	KIL	吉	220		KHANG	君	312
	KIL	吉	23		YOUNG	君	314
	YUM	君	231		NO	君	314

<그림 6-4>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목록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 성(姓)씨는 가나다순으로, 조사항목인 'NAME(영문 이름)', '성명(한글 이름)', '성별', '연령', '주소'가 기록되었으며, 1쪽에 20명의 명단이 세로방향으로 작성

- 명부는 모두 956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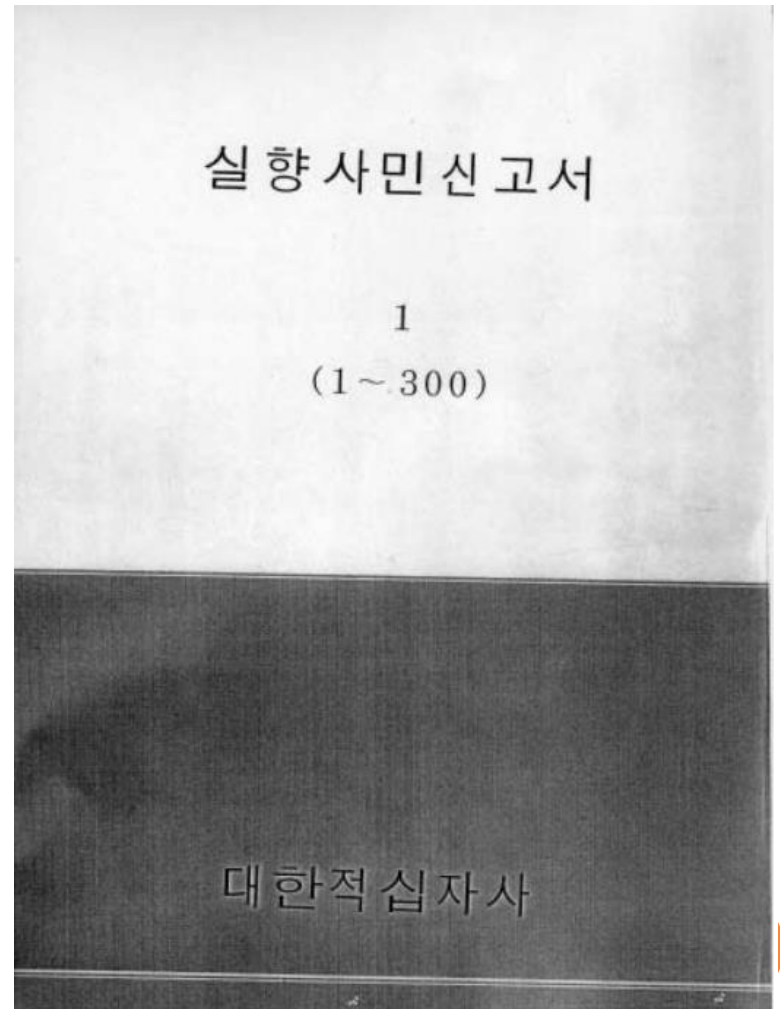
KANG CHANG SUB	姜 長 燾 男	24	咸興郡耶路谷里大邑
KANG HI YONG	姜 熙 應 "	22	" " " " 412
KANG SIN WCHAN	姜 信 煥 "	24	" " 文白面五里里485
KANG WON KIL	姜 元 吉 "	29	" " 德山郡仁山里
KANG HI JOONG	姜 喜 中 "	24	" 龍川郡三山里450
KANG OK SOO	姜 億 秀 "	25	" " " 上飯里416
KANG MAN SOO	姜 滿 秀 "	27	" " " 梧谷里454
KANG KUN	姜 根 煥 "	25	" " 三助里德川里475
KANG KIL WON	姜 吉 遠 "	25	" " 大外里三助里
KANG CHONG WON	姜 正 遠 "	25	" " " "
KANG TAE YUON	姜 泰 允 "	37	" " " 德石里
KANG YONG DAM	姜 億 談 "	34	" " " 山山里
KANG IN DAE	姜 仁 大 "	33	" 咸興郡新羅里龍川里163
KANG SEUNG DAE	姜 成 大 "	23	" " " " 3
KANG YONG UI	姜 容 毅 "	29	" " " 德石里
KANG HAN YONG	姜 漢 應 "	39	" " 龍川郡德川里169
KANG IN WCHAN	姜 仁 煥 "	25	" " " " 1102
KANG SE YONG	姜 世 應 "	24	" 咸興郡新羅里
KANG KI WON	姜 基 遠 "	24	" " 德石里157
KANG KYONG MAN	姜 敬 萬 "	22	" 咸興郡新羅里龍川里262

<그림 6-5>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내용

7. 『실향사민신고서』

1) 작성 기관

- 납북자의 유가족들이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 납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7,034명의 신고서
- 대한적십자사가 낱장으로 보관해온 원본을 2002년 27권의 분량으로 제본
- 22권과 27권의 원본이 분실되어 현재 총 6,472건 보존



<그림 7-1> 『실향사민신고서』의 표지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2) 작성 배경

-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납북자 유가족들이 대한적십자사에 발송한 것을 대한적십자사가 취합한 것
- 대한적십자사는 제본의 편의상 300명씩 묶어 책자로 만들었으며, 당시 유가족들이 사용한 편지봉투도 함께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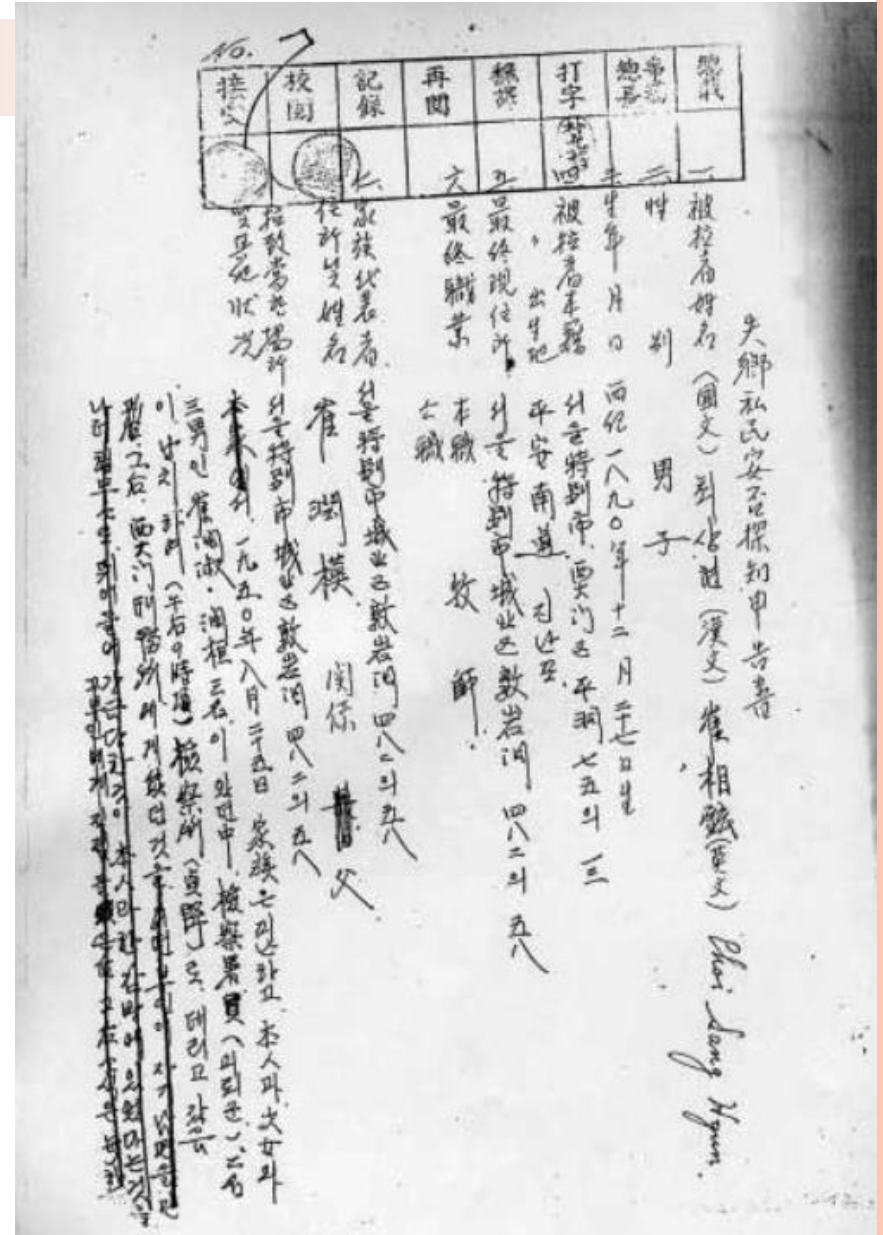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3) 명부 내용

- 일정한 서식이 없이 유가족들이 편지지에 작성
- 기본적인 납북자의 신고사항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가족대표', '납치장소 및 납치상항' 작성
- 이외에도 납북당시의 납북자 개인에 관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



<그림 7-2> 『실향사민신고서』의 내용

8.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1) 작성 기관

- 대한적십자사가 『실향사민신고서』를 정리하여 1956년 발행
- 7,034명의 명단 수록



<그림 8-1>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의 표지

2) 작성 배경

-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들의 안부를 탐지해주겠다”며, 유가족들로부터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은 『실향사민신고서』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둔 것
- 『실향사민신고서』와 일련번호가 동일하며, 7,034명의 납북자 명단 기록
- 명부의 제목에 ‘납북자’라는 용어가 아닌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에 안부탐지를 하기 위한 궁여지책 이었다는 평가
- ‘납북자’ 대신 ‘실향사민’의 용어 사용은 북한이 납북자에 대해 수궁하지 않는 명분을 준 중요한 문제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3) 명부 내용

- ‘색인’ 다음에 ‘납치인사 등록자 통계(접수기간 1956년 6월 15일~8월 15일)’

(1) 성별

- 남자(6,884명), 여자(150명), 총 7,034명

(2) 연령별

- 18세부터 89세까지 각 연령별로 해당되는 납북자의 수

<표 8-1> 납치인사 등록자의 연령별 통계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18	1	19	2	20	5	21	5	22	16	23	45	24	97
25	161	26	201	27	263	28	270	29	270	30	303	31	296
32	275	33	267	34	248	35	262	36	240	37	230	38	190
39	208	40	244	41	189	42	215	43	182	44	177	45	164
46	138	47	141	48	129	49	155	50	124	51	131	52	92
53	114	54	101	55	82	56	96	57	70	58	86	59	72
60	82	61	59	62	48	63	45	64	31	65	26	66	19
67	33	68	19	69	24	70	20	71	18	72	8	73	6
74	7	75	5	76	4	77	2	78	3	79	8	80	4
82	1	86	1	88	1	89	3						



(3) 출생지 및 납치지역

- 출생지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의 순
-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순
- 북한 출신도 1,036명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한 2,199명보다 납치인원이 4,981명으로 2배 이상 납치된 것은, 납북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옮겨와 생활한 것으로 추정

<표 8-2> 납치인사 등록자의 본적지별 통계

도 별	출생인원 (명)	납치인원 (명)	도 별	출생인원 (명)	납치인원 (명)
함경북도	87		충청북도	253	122
함경남도	226		충청남도	312	91
평안북도	295		전라북도	133	28
평안남도	216		전라남도	180	18
황 해 도	212		경상북도	455	175
강 원 도	545	377	경상남도	203	25
서울특별시	2,199	4,981	제 주 도	23	-
경 기 도	1,695	1,217			

(4) 직업별

- 공무원이 1,35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업(1,005명), 상업(966명), 회사원(737명), 학생(677명), 교육자(355명)의 순

- 농업의 인원이 많은 것은 당시 농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사회구조적인 이유라고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전쟁 후 북한지역의 피해 복구 작업에 동원

- 정치인,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언론인, 의료인, 회사원 등 지식층이 많은 것은 북한의 “남조선에서 인테리 모셔오기 작전”(김일성 교시, 1946)의 실행 결과

<표 8-3> 납치인사 등록자의 직업별 통계

종 별	인 원	종 별	인 원	종 별	인 원
정치인	85	의료원	199	노 동	177
공무원	1,359	예술인	36	학 생	677
판검사	34	저술가	15	무 직	248 *
변호사	72	어 업	6		
언론인	75	임 업	6		
기 업	208	철공업	162		
상 업	966	토건업	66		
농 업	1,005	은행원	94		
광 업	24	회사원	737		
종교인	82	통 역	16		
교육자	355	기술자	330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5) 개인별 기록사항

-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 ‘직업’ 등을 상세하게 기록
- 작성방법은 가로로 한 쪽 분량에 16명 기록, 전체 문서의 분량은 542쪽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	직업
13	金周慶	男	37	서울	서울麻浦区阿峴洞 463의52	운수수
14	金永秀	·	30	京畿	京畿道坡州郡州内面坡州里36	公務員
15	金世鐘	·	41	咸南	서울市鍾路区孝子洞 133	·
16	金虞重	·	43	·	· 中区南山洞 2가 30	·
22	金基元	·	30	忠南	· 南倉洞 129	學生
26	金允燦	·	41	平南	· 鍾路区世宗路 1	州車
29	金吳碩	·	44	金南	· 龜山区南營洞 43의21	辨護士
38	金元植	·	43	平北	· 西大門区冷泉洞 65	工業
40	金洪在	·	36	慶南	· 城北区貞陵里 680	公務員
42	金永煥	·	33	서울	· 中区三角洞 41	通譯官
43	金正圭	·	38	京畿	· 城北区城北洞 217의44	公務員
54	金令碑	·	32	平北	· 龜山区李岩洞 (京畿)	電工業
55	金東旭	·	46	서울	· 鍾路区李滌洞 136	敎員
67	金克鍾	·	30	·	· 麻浦区孔德洞 12의22	勞動
76	金頽奎	·	55	咸南	· 城北区歙岩洞 473의15	銀行員
83	金松憲	·	40	京畿	· 鍾路区苑西洞 99의14	公務員

<그림 8-2>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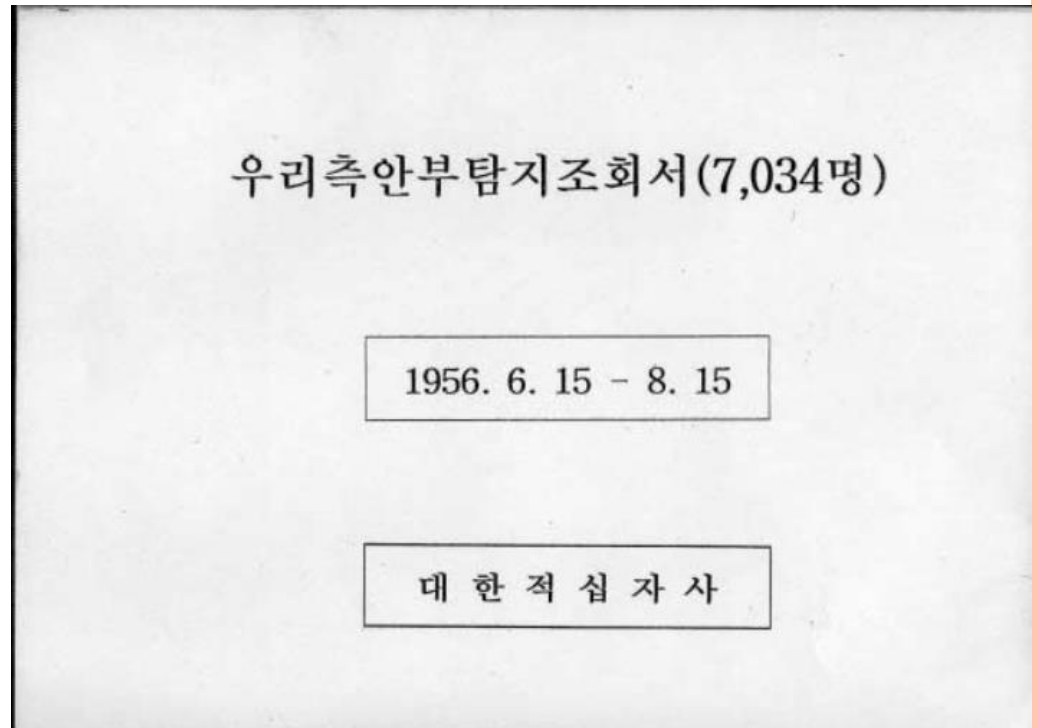
9.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

1) 작성 기관

- 1956년 10월, 대한적십자사가 『실향사민신고서』를 요약하고, 영문 추가
- 7,034명의 명단 수록

2) 작성 배경

-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10월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를 국제적십자사에 보냄.
- 국제적십자사는 이 조회서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 송부



<그림 9-1>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의 표지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3) 명부 내용

- 조회서 양식은 한 쪽 분량에 납북자 1명의 기재항목으로 되어 있고, 영문과 국문으로 표기한 것을 복사하여 사용
- 상단의 일련번호는 『실향사민신고서』, 『실향사민 등록자 명부』 모두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 두 명부를 대조해 볼 수 있게 작성

NO. 1/

한 부 탐 지 조 회 서
WELFARE AND WHEREABOUTS INQUIRY FORM

(성 명) Full name	이 한 명 (李漢暎)	(성별) Sex	(남자) MALE
(생년월일) Date of birth	1905년 2월 28일	(출생지) Place of birth	전라남도 해남군 (全南 海南郡)
(본적지) Place of origin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648 (全南 海南郡 馬山 面 孟津里 648)	(최종주소) Last known address	서울시 중부경찰서 3가-55 (서울 中 部 警 署 3 街 - 55)
(최종직업) Last known occupation	상인 (商 人)	(관계) Relationship	wife
(가족명) Next of kin	김, 보영 (金 保 榮)		

(실종당한 장소 및 실종 상황)
Place and Circumstances of disappea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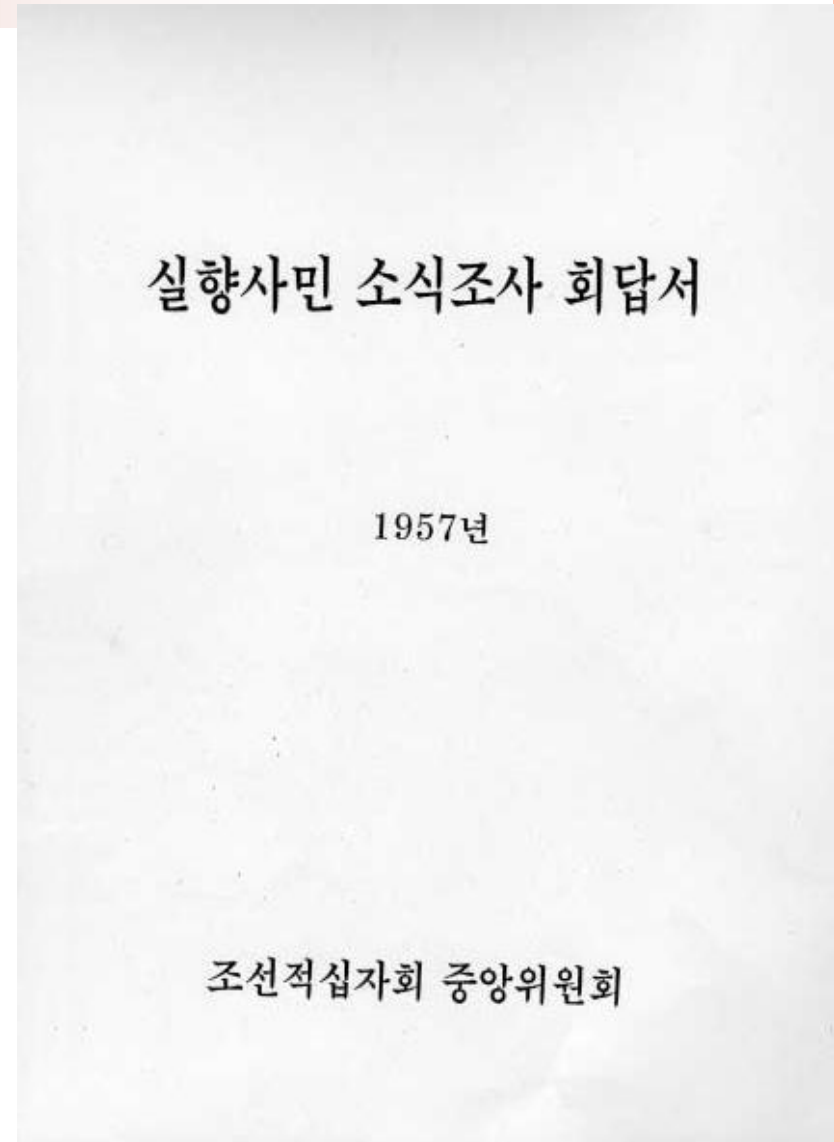
1950년 7월 15일. 중부경찰서원 2명에게 회포됨.
At 1 p.m. July 15, 1950, he was kidnapped by the Internal Security men of Choong-Boo Police Station.

<그림 9-2>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의 내용

10.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1) 작성 기관

- 1957년,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명부
-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에 대한 답신
- 336명의 명단 수록



<그림 10-1>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의 표지

2) 작성 배경

- 1957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북한의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생사확인을 요청한 『우리측 안부탐 지조회서(7,034명)』에 대하여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보냄.

3) 명부 내용

- 한 쪽에 2명의 납북자에 대한 사항이 기록, 납북자 개인별로 ‘소식 조사 회답’이라는 제목 밑에 ‘No’,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 등 각 항목이 국문으로 기재
- 납북 당시의 납북자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국회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교원, 회사원 등 사회지도층들이 많았고, 합계가 337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36명으로 확인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표 10-1> 소재 확인자 납북 당시 직업별 통계

직업별	인원수	직업별	인원수
국회의원	9	간호원	4
공무원	33	약제사	2
대학교수	6	식당종업원	1
교원	17	인쇄공	3
회사원	29	전공	1
의사	9	병원조수	1
직공	8	건축업	2
농업	67	공업	4
목공	7	점원	1
상업	35	운전	5
무직	32	화가	1
기자	3	이발	1
학생	47	은행원	1
철공	6	정미업	1
계		337	

<표 10-2> 소재확인 당시 직업과 생활수준

직업별	인원수	생활수준
평화통일촉진회	8	상위층 13
교수	5	
사무원	55	중간층 112
학생	23	
교원	13	
병원 또는 진료소	13	
은행원	3	
기자	3	
가극단	2	
농업	41	하위층 113
직공	63	
탄광	6	
운전	3	
미기재	99	99
계	337	377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 ‘소식 조사 회답’이라는 제목 하에 납북자 개인별로 ‘No,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를 국문으로 기재

- 해당 납북자에 대한 북한에서의 거주지 및 현재 활동사항 기록

36 88 195 년 월 일

소식 조사 회답
(Reply to Welfare and Whereabouts Inquiry)

성명 (Full name) 박영리 (朴英利) 생년월일 (Date of birth) 1921년 2월 6일

성별 (Sex) 남자 최종직업 (Last known occupation) 보통통신사 종무

본적지 (Place of origin) 충청북도 증주군 삼천면 영서리

최종거주지 (Last known address) 서울시 영등포동 226

의뢰자성명 (Name of inquirer) 김복순 그와의관계 (Relationship) 처

소식조사결과 (Reply to inquiry) 박영리는 평양시 서구역 삼동동계 거주하면서
삼동동 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음.

36 87 195 년 월 일

소식 조사 회답
(Reply to Welfare and Whereabouts Inquiry)

성명 (Full name) 리상경 (李相慶) 생년월일 (Date of birth) 1921년 4월 7일

성별 (Sex) 남자 최종직업 (Last known occupation) 구회직원

본적지 (Place of origin) 경남 하동군 하동읍 내동 415

최종거주지 (Last known address) 서울시 용문구 로자동

의뢰자성명 (Name of inquirer) 상차희 그와의관계 (Relationship) 처

소식조사결과 (Reply to inquiry) 리상경은 평양시 서구역 대신동계 거주하면서
재북 평화통일 촉진 협회 직원으로 일하고 있음.

<그림 10-2>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의 내용

11. 『실향사민명부』

1) 작성 기관

- 1963년 1월 1일, 국방부(‘국제연합군 총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 군 대표단’)가 작성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명부

- 불행하게도 11,675명이 기록된 1권만 발견

- 아직 2권은 발견 못함.

失 鄉 私 民 名 簿

一九六三年一月一日

國 聯 軍 總 司 令 部 軍 事 停 戰 委 員 會

大 韓 民 國 軍 代 表 團

<그림 11-1> 『실향사민명부』의 표지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2) 명부 내용

- 조사항목으로 ‘연번호’,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이 기록, 연번호와 연령, 명부 하단의 쪽 번호는 손으로 직접 성.
- 나머지는 활자 인쇄
- 한 쪽에 세로로 납북자 25명의 명단을 수록, 다른 명부와 달리 표를 만들지 않음.
- 1권에는 金씨가 가장 먼저 나왔고, 姜, 權, 高, 郭, 具 등의 납북자수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권의 뒷부분에는 李씨의 명단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기록
- 발견된 1권은 467쪽

連番號	姓	名	年齡	性	住	所
1	金	坤	46	男	서울특별시西大門區延禧洞	山九十八番地
2	金	坤	47	男	•	• 龍山區龍山洞一〇의二號
3	金	剛	50	男	•	• 城東區新堂洞八〇番地
4	金	禎	30	男	•	• 鎭路區明倫洞一街三二의七號
5	金	光	31	男	忠清北道堤川郡鳳陽面	
6	金	龜	37	男	서울특별시龍山區靑波洞三街	一〇番地
7	金	健	48	男	•	• 中區草洞二二番地
8	金	九	60	男	•	• 鎭路區明倫洞四街七四의三號
9	金	甲	34	男	忠清北道鐵川郡谷谷面大門里	
10	金	甲	32	男	京畿道高陽郡瑞源面高陽里	
11	金	光	36	男	서울특별시城東區下往十里	三五의六號
12	金	光	38	男	京畿道始興郡西面所下里	三二의六番地
13	金	桂	34	男	서울특별시城東區舍井洞	二六三番地
14	金	啓	36	男	•	• 舍井洞一二番地
15	金	珪	31	男	京畿道高陽郡瑞源面高陽里	二七〇番地
16	金	庭	29	男	忠清北道忠州郡	
17	金	今	32	男	•	• 中原郡可金面可良里
18	金	甲	34	男	忠清南道公州郡綠川面花井里	
19	金	甲	30	男	忠清北道槐山郡七星面外沙里	一六一番地
20	金	敎	24	男	•	• 清原郡北二面石城里
21	金	瓊	29	男	•	• 槐山郡七星面社川里
22	金	基	23	男	•	• 報恩郡報恩面江新里
23	金	基	28	男	•	• 水向郡永同面梧蘿里
24	金	徵	45	男	서울특별시中區忠武路四街	一의九號
25	金	慶	48	男	•	• 草洞一〇六의二五號

<그림 11-2> 『실향사민명부』의 내용

II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12. 『INFORMATION REPORT』

1) 작성 기관

- 북한이 1950년 10월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
- CIA 정보원이 습득한 납북자 명부로, 그동안 미국 NARA에서 보관
- 661명의 명단 수록

CLASSIFICATION CONFIDENTIAL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REPORT

COUNTRY Korea

SUBJECT Persons Arrested in Seoul by the North Koreans

PLACE ACQUIRED [REDACTED]

DATE OF INFO. 15 October 1950

REPORT NO. [REDACTED]

CO NO. [REDACTED]

DATE DISTR. 19 January 1951

NO. OF PAGES 26

NO. OF ENCL. (LISTED BELOW) 2

SUPPLEMENT TO REPORT NO.

THIS IS UNEVALUATED INFORMATION

<그림 12-1> 『INFORMATION REPORT』의 표지

2) 작성 배경

- 1950년 10월 15일 미국 CIA 정보원이 습득한 명단을 영어로 번역하여, 1951년 1월 19일 본부에 보고한 명부
- 북한군에 체포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서울거주자 명단이 기록된 최초의 납북자 명단으로 추정
- 명부를 습득한 장소는 지워져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북한 측이 작성한 명단일 가능성이 높음.
- 납북자의 영문 이름 옆에 수기로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CIA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문서에 기록된 명부의 습득일자는 시기적으로 한국정부가 작성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북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



3) 명부 내용

- 조사항목으로 ‘name’, ‘address’, ‘occupation’, ‘date of arrest’ 기재
- 명부는 총 26쪽, 각 쪽에 26명씩 661명의 납북자 명단이 영문타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영문 이름 오른쪽에 수기로 한문 이름 기재
- 납북자들의 명단은 영문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나, 납북자의 나이, 성별, 납치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CONFIDENTIAL
INTELLIGENCE AGENCY

Name	Address	Occupation	Date of Arrest
CH'Ä T'ung-twan (卓榮煥)	222-1076	Police	7
CH'ÄE Kyu-py'ong (張奎同)	262-3 Saehik-dong	None	19 Aug
CH'ÄN Kyu-bok (蔡奎獲)	127-33 Okcheon-dong	National Guard	7
CHAMU Chin (張紳)	114 Toe-dong	Actor	18 July
CHANG Haeng-kw'uk (張衡國)	560-2 Tonan-dong	ROK govt employee	23 Aug
CHANG Ki-hong (張基弘)	48 Tonan-dong	Tathan Youth Group	5 July
CHANG Kil-p'ong (張吉鳳)	87-34 Sindang-dong	Clerk	July 11
CHANG Nam-chin (張南鎭)	140 Waryong-dong	Commerce	10 July
CHANG Nam-chong (張南重)	572-7 Ahyon-dong	Teacher	2 July
CHANG Py'ong-y'op (張炳燮)	8-38 Kongdok-tong	Fire Station Chief	27 Aug
CHANG Saek'on (張錫恩)	262 Saehik-dong	ROK govt official	1 July
CHANG Se-ch'ang (張世昌)	174 Hakwo-dong	ROK Army	7
CHANG Sok-w'on (張錫元)	65-11 Songdok-tong	High-ranking official under the Japanese	18 Aug
CHANG U-b'op (張南勳)	52 Mukchong-dong	Section chief, ROK govt	7 Aug 1950
CHANG Won-sik (張源植)	Chokson-dong	Police	10 Sept
CHANG Yang-ho (張良浩)	250-5 Inan-dong	Middle school graduate	21 Sept
CHANG Ki-ky'ong (張奇泳)	29 Ika Uiji-re	Commerce	5 Aug
CHI Ch'ang-hwa (池尚華)	191-6 Kongdok-tong	Teacher	2 July
CHIM Chae-y'ong (陳在英)	84-19 Obe-dong	Student	12 Sept
CHIL In-kun (蔡仁根)	Sibung-gu	Judge	5 Aug
CHIN P'il-ch'ang (秦必昌)	48 Hakwon-dong	ROK Army 1st Lt.	15 Aug
CHIN Tong-hwa (陳永華)	222 Nohun-dong	HR employee	22 July
CHO Ch'ui-hwan (趙桂煥)	372 Sindang-dong	Former ROK govt official	9 July 1950
CHO Ch'ui-ki (趙桂基)	340-22 Sindang-dong	County governor	7 July
CHO Chong-ha (趙曉河)	Imun-dong	Factory worker	15 Sept
CHO Ch'ong-y'ong (趙子童)	31-21 Yongryun-dong	Director of Monetary Guild	8 Aug

<그림 12-2> 『INFORMATION REPORT』의 내용

III

기존 명부들의 종합분석

1. 명부의 발행시기별 구분

<표 12-1> 발행시기별 납북자 명부 내역

번호	명부(권)	작성기관	대상지역	발행일	납북자 수(명)	비고
1	INFORMATION REPORT	미국 CIA	서울	'50.10 이전 추정	661	참고용
2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단(1권)	공보처 통계국	서울	'50.12.1	2,438	피살, 행방 불명 나타냄
3	6·25사변 피납치인 사명부(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가협회	서울인근	'51.8.27	2,527	신문에 전달 용으로 작성
4	6·25사변 피납치인 사명부(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가협회	서울인근	'51.9.1	2,316	신익희선생에게 전달
5	6·25사변 피납치명부(4권)	대한민국 정부	전국	'52	82,959	전국단위 최초의 명부
6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명부(2권)	내무부 치안국	남한 출신	'54	17,940	마이크로 필름 상태
7	남한출신실향사민명부(1권)	6·25사변 피납치인사가협회	남한 출신	'54	17,900	치안국에서 보관함
8	실향사민 신고서(27권)	납북자 유가족	전국	'56	7,034	납북신고서 형식
9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전국	'56	7,034	7번의 정리
10	우리측 안부탐지 조회서	대한적십자사	전국	'56	7,034	8번에 영문 추가
11	실향사민소식조사회 답서(1권)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전국	'57	337	8번에 대한 답신
12	실향사민명부(1권)	국방부	전국	'63	11,675	2권 이상



III

기존 명부들의 종합분석

2. 명부의 연도별, 작성기관별 구분

	1950	1951	1952	1953	1954	1956	1957	1963
정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정부)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가족회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UN에 전달)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 (신익희선생에 전달)			남한출신 실향사민 명부			
대한 적십자사						실향사민신고서(유가족 작성)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		
북한 적십자사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미국 CIA	INFORMATION REPORT							

<그림 12-1> 연도별, 작성기관별 납북자 명부



III

기존 명부들의 종합분석

3. 명부의 조사항목별 구분

<표 12-2> 납북자 명부의 조사항목별 비교

번호	명부(권)	발행일	납북자 수(명)	조사항목	비고
1	INFORMATION REPORT	'51.10	661	성명(영문, 한문), 주소, 직업, 체포일	참고용
2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1권)	'50.12.1	4,616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 일시, 피해 종류 ¹⁾ , 피해 장소, 약력, 주소	
3	6·25사변 피납치자명부(1권)	'51.8.27	2,527	성명(영문, 한문), 연령, 직장, 주소, 납치년월일	
4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1권)	'51.9.1	2,316	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일자	
5	6·25사변 피납치자명부(4권)	'52	82,959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주소	
6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2권)	'54	17,940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납치상황, 당시주거지	
7	남한출신실향사민명부(1권)	'54	17,900	성명(영문, 한문), 성별, 연령, 주소	
8	실향사민신고서(27권)	'56	7,034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가족대표, 납치장소 및 납치상황, 개인에 관한 내용	
9	1956년 실향사민등록자 명단	'56	7,034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 직업	
10	우리측 안부탐지 조회서	'56	7,034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최종현주소, 최종직업, 가족대표, 관계, 실향당한 장소 및 실향 상황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
11	실향사민소식조사 회답서(1권)	'57	3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	국문으로 기재
12	실향사민명부(1권)	'63	11,675	성명, 연령, 성별, 주소	2권 미발견



IV

결론 및 시사점

- 6·25전시 납북자의 정의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전시납북자 명부 12종 발견, 납북자의 수도 약 10만여명에 달함.
- 김일성(1946)의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데 대하여’라는 담화내용에서 6·25전시 납북자 문제는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새 생활의 길을 열어주며, 그들의 희망에 따라 교육, 과학연구, 문화예술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에 시행된 햇볕정책은 북한달래기에 힘써왔기 때문에, 납북자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걸쳐 납북자 특별법의 제정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옴.
-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않지만, 납북자 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 문제



IV

결론 및 시사점

- 이제, 납북자 가족의 생존권과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며,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납북자들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마련해야 함.
-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므로, 정부는 북·일수교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 먼저 납북자의 생사확인 and 소재지 파악이 선행되고, 납북자의 상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여야
- 나아가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납북자들의 유해송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할 과제





감사합니다.